

社說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법'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약 727조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3번째로서 긍정 평가한다.

여야가 격한 경쟁 속에서도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이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한때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특별법 취지가 무색하게 주 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에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 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반도체특별법에 다는 방식으로 법안을 성안해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황당한 반응이다. 각종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구 사항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지면서 R&D 경쟁력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전력을 쏟아부어도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등과의 경쟁 대열에서 버틸 수 있을지 갈라진 상황이다.

정지권은 산업계 지원책이 제동을 걸어서 안 된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최첨단 산업의 핵심이다. 단순한 기업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안

여야, 반도체법 주 52시간 유지 합의는 시대 역류
美 성과로 임금 지불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도입
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는 골든타임 지나기" 우려

보 산업이다. 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당장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명문화하는 게 절실하다. 반도체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제션(White-Collar Exemption)'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국가 핵심 산업의 R&D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런 식으로 칼로 무 자르듯 정상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근무 관성과 가속이 필요한 기술 인력들의 연구 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유연 근무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해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 도입을 건의한 주된 이유다.

특히 첨단산업의 '쌀'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여당 민주당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이고 국민 눈속임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에 대해 민주당은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후진적'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액 연봉을 받은 반도체 R&D 직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워런 논리까지 대면서 반도체법을 막고 있으니 얼마나 시대 조류를 몰각하고 있는지 가가 막힐 노릇이다.

반도체특별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업용수와 전력 등 제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시설투자자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게 지연돼 반도체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R&D 정부 지원 강화 등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미래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규제 혁파가 바로 그 뒷받침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운명은?



방민호의 오늘생각

서울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시인

이 사람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한다. 이번 주 안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든지 공격을 받아 죽음을 택하든지 하라고 했단다. 이런 망명 합의설도 나오기는 한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1962년생이다. 원래는 버스 운전사였고, 노동조합의 활동가 출신이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의 측근으로 외무장관, 부통령을 지냈다. 차베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뒤를 이어 현재 3선을 기록 중이다.

2024년 7월28일 치러진 대선에서 정부의 '선거통제기관'은 마두로가 51%의 득표율로 당선했다고 발표했다. 반대진영은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 독자적인 집계에 따르면 야권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는 것이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후 마두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의 마약 수출의 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기에 입을 맞추고 있다. EPA-연합뉴스

거지라 했고, 마두로가 직접 여기에 관계한다고 했다. 최근 들어서는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인 부정선거 메커니즘의 코어 역할을 한다는 뉴스가 잇따랐다. 단순히 마약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 때문에 마두로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의 내부고발자들이 미국으로 비밀리에 망명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챗지피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마두로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런 평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베네수엘라도 전자투표를 하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전자식인 것은 또 아니란다.

장황한 설명이 뒤따르는데, 들어보니, 한국과 '똑같다' '선관위(NEC:National Electoral Council)'가 관리를 맡고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종이 투표지(paper ballot)에 표시를 하고 개표도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다만', 유권자 등록, 투표소 배정, 신원 확인, 선거 데이터 관리

등 행정적인 절차에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을 '관행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투표 자체는 '전통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 행정, 통계, 사후처리' 등에서 '만' 전산이 '일부'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베네수엘라는 전자식 '가상현실'이 오프라인 선거 과정을 지배하는 것 아닐까?

오랫동안 마두로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했다. 차베스의 후계자라니 했다. 암이 발견된 후 차베스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더 지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치체제가 '좌의 전체주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다. 포퓰리즘이지만 '제3의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 마두로 체제가 지속되면서 모든 사태가 명백해졌다. 석유지원이 그렇게 많다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인다.

'반제국주의'적 사유는 그것을 제국주의 탓으로 돌린다. '좌의 전체주의'는 '외부의 적'에 기대어 연명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민중들이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유와 진실을 되찾기 바란다.

미국 트럼프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강익현의 허허실실

虛虛實實

前 싱가포르 대사관 공사 국제정치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것도 마두로를 강대(thug)라고 부르면서 몰라나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는 협박 투였다. 뉴욕포스트(12월1일자) 1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상에 세계 최대 항모인 제럴드 포드함을 배치해냈다. 작전명은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 남방을 향한 창검)'. 트럼프는 마약-테러 퇴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동시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의 수괴로 지목했다. 미국은 또한 베네수엘라가 차베스로부

터 시작, 현 마두로 정권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 깊숙한 이면에는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배후에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 전문 기업인 스마트메틱과 마두로 정권이 도사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 이 미 군사 행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항모 배치되는 시점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부정선거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만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부정선거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마두로 정권의 끝을 보려 할 것이다.

마두로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버웃고 결사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은 12만여 명 정도이나 박봉에 시달

려왔고 실전 경험도 없는 데다 훈련 상태도 형편없다. 무기 체계도 25년전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 전투기(20대), 헬기, 탱크 등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항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 군은 미군 공격 시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게릴라 방식 저항을 벌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는 바람에 미국이 선박 통행료를 과도하게 많이 물고 있다면서 운하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홍콩의 CK허치슨홀딩스에서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멕시코가 마약과 이민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세를 더 물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놔다. 브라질 대법원에 트럼프의 절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에게는 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트럼프는 최근 치러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우파 후보인 아스푸라를 대놓고 지지했다.

트럼프는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먼로 대통령은 유럽 열강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막고자 현대판 먼로 독트린을 재가동 중이다. 이를 두고 뉴욕포스트(1월 28일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섞어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요구한 그대로를 동맹국인 우리에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과 중국간 관계가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니 더욱 더 그러할 수 있다. 현명한 대미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Advertisement for the book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The General Who Loved the Youth). The ad features the book cover on the left, which includes the author's name '임관빈 지음' and the title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The main text on the right reads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10 life pieces of advice written with love for success and happiness in the 2030s). Below the text are illustrations of people running and a starburst graphic. At the bottom, it lists the author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